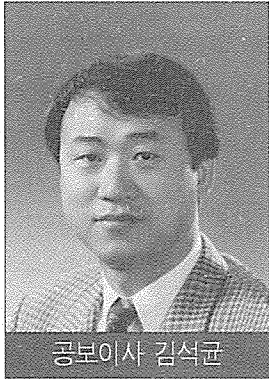


1998 치과계 전망

홍보의 영역확대 및 영향력 강화



공보이사 김석균

각 지부와 연계해 체계적인 회무를 전개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이 느껴지는 치과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며 지부와 업무를 분담하여 비효율적으로 중복되는 홍보활동을 지양해 실질적인 실무활동은 지부가 담당하고 정책적인 업무에 비중을 뒤...

마지막 회계연도를 맞이해 공보위원회에서는 금년 한해를 치협 홍보활동의 활동영역 확대와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치협은 물론 회원 개인 각자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보위원회는 각 지부와 연계해 체계적인 회무를 전개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이 느껴지는 치과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며 지부와 업무를 분담하여 비효율적으로 중복되는 홍보활동을 지양해 실질적인 실무활동은 지부가 담당하고 정책적인 업무에 비중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또 협회의 홍보전문화를 위하여 사무처 홍보국에 전담 인원을 배치하려 했으나 작년말부터 시작된 IMF한파 등 주변여건의 악화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일단은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 가능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충실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지 치의신보의 발간과 관련해서는 작년 한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 진정 회원들의 사랑을 받는 기관지로 거듭 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잘 유지되어 오던 치의신보의 독립채산제가 여러 여건의 악화로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나름대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란 회원의 회비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광고수입으로만 신문제작에 드는 모든 비용(발송비는 물론 기자·광고담당자 및 직원의 봉급)을 자체 조달하는 체제입니다. IMF영향에 따라 광고수입의 감소와 종이값의 폭등으로 독립채산제의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신문면수를 줄이거나 종이질을 한 단계 낮추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외부에 위탁해 제작되던 협회지 역시 사무처 학술국과 공동으로 자체 발간 1년을 맞이해 회원의 협회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분량의 감소와 종이질 및 색도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홍보라 하는 것이 일면 일에 대한 효과가 즉시 즉시 나타나는 것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주목을 받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제 협회도 장·단기 플랜을 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보위원회에서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협회는 물론이며 회원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수행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